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전주시민과의 약속' 민선8기 공약사업 확정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음 10월 22일) 제31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내년 본예산안 편성

도민안전 강화 민생경제 안정

올해보다 7754억 증가 9조8579억원 규모

김관영 도지사 "건전재정의 진정한 의미 예산 축소아닌 필요한 곳에 쓰는 데 있어 경제 여건고려 미래 탄력 위해 투자 필요"

김관영 도지사는 전년 대비 7,754억원(8.3%↑)이 증가한 9조 8,5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첫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며,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선8기 첫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관련사진 3면〉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6억원(5.4%↑)증가한 7조 8,404억원, 특별회계는 326억원(3.3↑) 증가한 1조280억원, 기금은 3,252억원(49% ↑) 증가한 9,895억원으로 편성됐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한 부분은 복지분야로 2조2,030억원이 편성됐으며,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도민 누구나 고루 잘사는 복지를 표방한다.

도민 안전 강화에 8,768억원,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8,317억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에 2,813억원, 문화 및 건강한 체육 복지 실현에 1,794억원 농어촌 활력 강화에 8,782억원 등이 편성되어 전라북도의 개혁과 혁신의 동력원을 마련한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활력수당, 청년 두배적금 등의 사업에 699억원을 투입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와 다른 추가 편성에 관해서는 "건전재정의 진정한 의미는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는데 있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또 "전북의 재정건전성이 16개 시도 중 가장 최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건전한 예산이다"며 "전북도의 재정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때 미래의 탄력을 위해 투자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본예산(안)으로서 전북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제민생 제일주의 도정기조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대재해 대응, SOC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도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1일 열리는 제396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유희태 완주군수,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완주 상생·협치 길 열다

상생협력 추진 협약 체결
김 지사 "통합 전제 아냐 서로 윈윈하는 것이 목적"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전주·완주 양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양 시군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열고 '전주완주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 협력사업'과 '완주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우선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경제와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도지사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취임 이후 김 지사는 전주시장, 완주군수와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 그 효과를 양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동 사업을 발굴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양 시장 군수가 이에 화답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지난 9월 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들이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목록을 발굴했으며,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 2가지를 선정, 상호 역할을 조율한 결과 이날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 협력사업(이하 수소 협력사업)'은 양 지역의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다른 우선 추진사업은 '완주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완주 관내 전주시 소유자원인 상관저수지(정수장) 주변을 힐링공간으로 함께 조성해 양 지역 주민의 공동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완주군에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 전주시는 시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세부 개발 비용은 도(道)와 양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힐링공원이 조성되면 전주한옥마을과 완주 구이, 소양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도 가능해 두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양 시군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 추가 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SOC등 규모있는 사업까지 사업의 경중과 관계없이 양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개 단체장이 만나 추가 협약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공동 기반 구축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주민 교통불편 해소 등
추가 사업 지속 발굴키로

사업의 추진동력을 담보하기 위해 각 자치행정부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과 의제 발굴,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매달 여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로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 양 지역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맞잡고 소통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을 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해 준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에게 감사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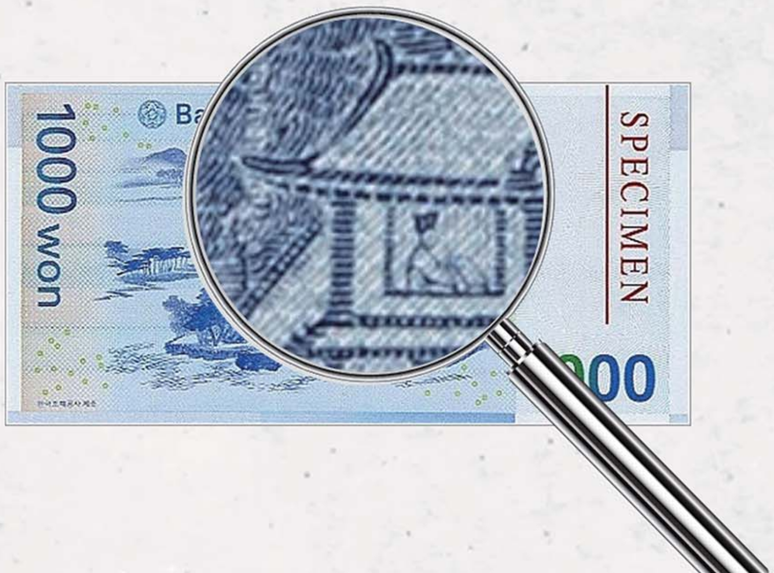
아울러, 본 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신뢰축적으로 서로 윈윈하고 모두가 잘 사는게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완주군과 적극 협력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전주시가 완주군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완주군과 꾸준히 소통하며 양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주시와 상생협력을 통해 완주군이 경제 중심지이자 문화관광 1번지,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전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정지은, 박지은, 박홍규, 도지인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 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 원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천 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 원에 당신의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소액 기부로 당신의 행복을 사시겠습니까?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